TV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30 굿모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이브의 사랑〉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 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40 지구촌 뉴스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황홀한 이웃〉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소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5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네트워크 특선 필통 55 바른말 고운말	10 대단한 레시피	00 주말드라마 〈여자를 울려〉(재)	00 KBC 생활뉴스 20 일일드라마 〈돌아온 황금복〉(재)
12		00 KBS 뉴스 12	10 비타민	00 MBC 정오뉴스 20 주말 특별기획 〈여왕의 꽃〉(재)	00 SBS 12 뉴스 45 닥터365 55 남도의 보물 100선
1	50 뉴스특급	00 대조영(재)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10 생활의 발견(재)	20 MBC 스포츠 2015 아시아 리듬체조 선수권 〈손연재〉	15 세상발견 유레카 55 날씨와 생활
2		00 2015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한국인의 밥상(재)		00 건강 클리닉(재)
3	00 직언직설	55 튼튼생활체조	45 후토스(재)	00 MBC 뉴스 10 보름달 공장 40 헬로키즈 싸이걸스	00 SBS 뉴스 10 SBS 이슈 인 사이드
4	1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재취업 프로젝트 〈나, 출근합니다〉(재)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40 TV 유치원 콩다콩	25 일일특별기획 〈딱 너같은 딸〉(재)	00 바이클론즈 30 꾸러기 탐구 생활
5	3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지오그래피	10 코파 반장의 동화수사대 (재) 40 동물의 세계(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생생 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축구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 vs UAE〉
7	10 갈데까지 가보자(재)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 드라마 〈오늘 부터 사랑해〉	15 일일연속극 〈불굴의 차여사〉 55 MBC 뉴스데스크	
8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일일연속극 〈가족을 지켜라〉	30 반려동물극장〈단짝〉 55 대단한 레시피	5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너같은 딸〉	00 SBS8 뉴스 45 KBC 8 뉴스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KBS 다큐1 〈한국경제의 골든타임〉 55 국민대합창 우리가	00 수목 드라마 〈복면검사〉	00 수목미니시리즈 〈맨도롱 또똣〉	00 드라마 스페셜 〈가면〉
11	00 통일준비 생활백서 잘 살아보세	00 KBS 뉴스라인 40 세계로 간 농부들 지구촌을 경작하라	10 해피 투게더	15 어게인	15 자기야
12	40 카톡쇼 X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 뮤직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MBC 뉴스 24 45 메이저 리그 다이어리	35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만나고 싶습니다(재)
06:10 세계의 눈(재)
07:00 빠삐에 친구(재)
07:15 잭과 팡(재)
07: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07:45 꼬마버스 타요(재)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로보카 폴리(재)
08:35 방귀대장 뿡뿡이
08:50 코코몽 3
09:05 원더볼즈(재)
09:20 풍선 코끼리 발루뽀
09:35 이얍! 스페이스 정글
09:40 달라졌어요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1:10 다큐 오늘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연중기획 〈행복한 교육세상〉
13:05 역사채널e
13:10 돌진 슈퍼가정부와 위험한 동네
13:40 사이틴-지구인 자격평가
13:50 따개비 루
14:00 마야의 모험
14:15 정글북 2
14:30 머털도사
15:00 초능력 특공대
15:15 두키 탐험대
15:30 빠삐에 친구
15:45 부릉! 부릉! 브루미즈
16:00 딩동댕 유치원(재)
16:20 원더볼즈
16:30 우당탕탕 아이쿠
16:45 잭과 팡
17:00 방귀대장 뿡뿡이(재)
17:15 풍선 코끼리 발루뽀
17:30 두다다쿵
17:45 로보카 폴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19:00 돌진 슈퍼가정부와 위험한 동네
19:30 EBS 뉴스
19:50 청춘! 세계도전기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중국한시기행〉
21:30 한국기행 〈바다로 가는 여자〉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24:05 역사채널e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Ⅱ-알짜개념〉
00:50 〃 〈고교 영어독해-junior〉
01:40 〃 〈확률과 통계〉
02:30 〃 〈기하와 벡터〉
03:20 〃 〈수학Ⅱ〉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기하와 벡터〉
05:00 뉴탐스런 〈화학Ⅰ〉
06:00 〃 〈지구과학Ⅰ〉
06:40 〃 〈세계지리〉
07:30 〃 〈법과 정치〉
08:20 2016 수능개념 〈윤연주의 영어〉
09:10 〃 〈이은주의 수학Ⅱ〉
10:10 2016 수능특강 〈영어b〉
11:00 〃 〈수학Ⅰb〉
12:10 올림포스 〈국어Ⅱ-알짜개념〉
13:05 〃 〈고교 영어독해-junior〉
14:00 2016 수능특강 〈국어a〉
14:50 올림포스 〈확률과 통계〉
15:40 〃 〈기하와 벡터〉
16:30 〃 〈수학Ⅱ〉
17:2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기하와 벡터〉
18:10 2016 N제 〈수학B〉
19:20 〃 〈세계사〉
20:00 EBS 스타강사 특강
20:50 2016 인터넷 수능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B형〉
21:50 〃 〈문학 B형〉
22:30 박봄의 이슈로 만나는 경제

EBS플러스2

07:00 2015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07:30 전산세무회계 시험대비강좌
08:30 ERP정보관리사 시험대비 강좌
09:00 즐거운 수학 EBS MATH
09:10 TV 중학 〈국어①②〉
09:50 〃 〈영어1〉
10:30 〃 〈도덕2〉
11:10 〃 〈국어③④〉
11:50 〃 〈영어2〉
12:30 EBS 특강
13:00 데일리 서술형 수학
13:10 중학 중·기시험 대비 〈사회1〉
13:50 〃 〈사회2〉
14:30 〃 〈역사1〉
15:10 스쿨랜드
15:20 초등중간성취도평가〈과학 3-1〉
15:50 〃 〈과학 4-1〉
16:20 〃 〈과학 5-1〉
16:50 〃 〈과학 6-1〉
17:20 만점왕 문제풀이 〈전과목 6-1〉
18:00 TV 중학 〈국어⑤⑥〉
18:40 〃 〈영어3〉
19:20 필독 중학 국어 〈소설〉
20:00 EBS 인문학 특강
20:50 EBS 기획시리즈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22:00 중학 중·기시험 대비 〈역사 2〉
22:40 〃 〈과학3〉
23:20 필독 〈사회2〉
24:00 사선에서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1일(음 4월 25일 戊午)

子 48년생 보고도 못 본체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체 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라. 60년생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72년생 막연하다면 위험에 처해지기 십상이다. 84년생 새옹지마요, 전화위복의 이치로다. 행운의 숫자 : 35, 92

丑 49년생 순탄하지 않다면 내면에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한다. 61년생 흑백을 분명히 가리지 않으면 난처해지겠다. 73년생 틀림없을 것이니 노파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85년생 반복 될 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06, 71

寅 38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을 들이는 것이 합당하다. 50년생 귀인이 보이느니라. 62년생 정면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74년생 뜻밖의 일에 관련되는 번거로움이 보인다. 86년생 모순점을 배제하라. 행운의 숫자 : 14, 79

卯 39년생 일장일단이 있음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지혜롭다. 51년생 의문이 가는 대목이 있을 것이니라. 63년생 여러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들겠다. 75년생 생각지도 않은 기회다. 87년생 역풍을 안고 있도다. 행운의 숫자 : 23, 43

辰 40년생 징후가 보일 때 즉시 손을 써야 제대로 효과를 보는 법이다. 52년생 말로만 끝낼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 64년생 파격적인 조건일 수도 있음을 감안할 때이다. 76년생 상황 윤리에 따른 호응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31, 67

巳 41년생 자주 접하다 보면 익숙해지리라. 53년생 기존의 틀이나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위험하다. 65년생 핵심 가치에 치중하지 않으면 무의미해진다. 77년생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9, 51

午 42년생 소강상태를 뒤로하고 수습 국면으로 접어든다. 54년생 체계적인 정돈이 필요하도다. 66년생 지나친 사양도 결례임을 알고 처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8년생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입장이 일관 되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84, 02

未 43년생 절대로 대충 넘길 문제가 아니니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다. 55년생 길성의 물이 가득 괴어 있는 계기이다. 67년생 신변에 상당한 변화가 보인다. 79년생 반드시 옥석을 가려야만 할 정황에 놓인다. 행운의 숫자 : 11,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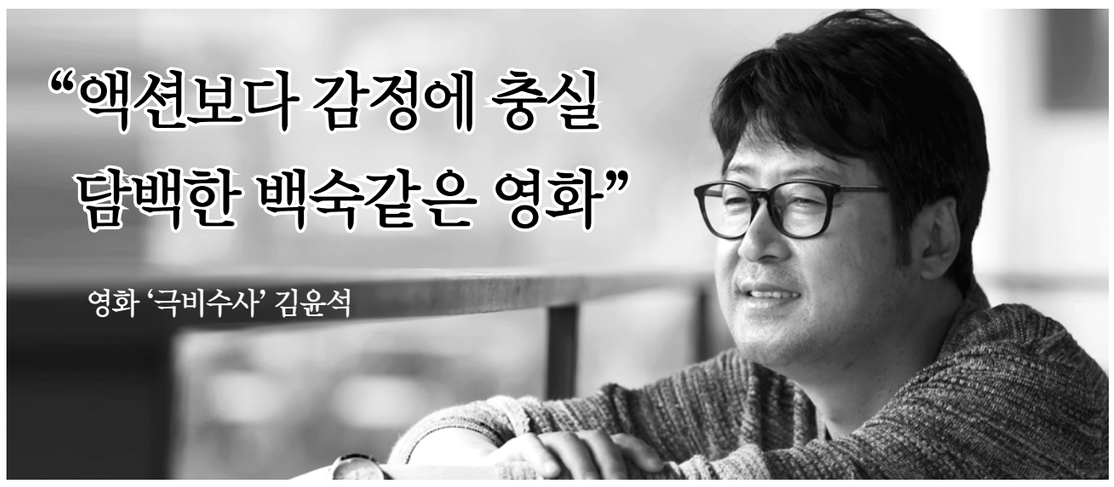
申 44년생 상대의 의사를 존중해 주자. 56년생 생각대로 행해도 거리낌이 없고 효과도 굉장하다. 68년생 형식적인 허울보다 실질적인 가치가 훨씬 더 낫다. 80년생 추진해 보았자 주목할 정도의 실익은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6, 96

酉 45년생 힘든 만큼에 비례해서 향후의 결실은 알찰 것이다. 57년생 간절히 희구한다면 얻을 수 있느니라. 69년생 대세를 관망한 후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유익하다. 81년생 빼도 박도 못할 처지이니라. 행운의 숫자 : 55, 76

戌 46년생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하자. 58년생 미세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감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70년생 낱낱이 조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82년생 필요에 따라서는 연기자가 될 수도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20, 86

亥 47년생 내색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이 더 낫다. 59년생 거슬리더라도 충고에 귀 기울이는 것이 옳다. 71년생 희구하여 왔던 바를 성취하게 되는 기쁨이 보인다. 83년생 건너짚었다 가는 망신당하는 수가 있다. 행운의 숫자 : 82, 9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액션보다 감정에 충실 담백한 백숙같은 영화"

영화 '극비수사' 김윤석

"상반기 한국영화의 깃대를 꽂을 만한 작품이죠."

배우 김윤석(47·사진)은 영화 '극비수사'(감독 곽경택)를 이렇게 소개했다.

영화 개봉을 앞두고 9일 종로구 삼청동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영화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을 드러냈다.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의 인상부터 그랬다.

"거짓말이 없어서 좋았어요. 수사물이라는 게 장르적인 겉포장이 많은데 자극적인 게 없더라고요. 실화이고 수사극이지만, 이야기를 어떻게 펼쳐나가야겠다는 초점이 남달랐어요. 읽으면서 궁금해지는 디테일이 숨어 있었고요."

'극비수사'는 1978년 부산 재력가 집안의 어린 딸이 납치된 실제 사건을 영화적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김윤석이 맡은 역할은 부모의 부탁으로 사건에 뛰어든 형사 공길용으로 실재하는 인물이다. 공 형사는 도사 김중산(유해진)과 함께 아이를 찾는 데 발벗고 나선다.

실존 인물을 연기하면서도 김윤석은 실제로 그를 만난 적은 없다고 했다. 신문 스크랩에 나온 '범인을 잡는 게 우선이냐, 아이를 구하는 게 우선이냐 하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인물'이라는 정도만 알고 캐릭터에 접근했다.

"우리가 간디 일대기를 영화화하는 건 아니니까요. 실존 인물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1차적인 목표는 아니었어요. 시나리오에 있는 공길용 캐릭터를 연기하려 했습니다."

그가 이해한 공길용 캐릭터는 '절실함'에 바탕을 둔다. 공 형사는 아이를 유괴당한 엄마의 얼굴을 마주하고, 관할 다툼이 더 중요한 동료들로 인해 아이를 구하지 못할 위기에 놓이며, 실제로 범인이 자신의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순간을 맞이한다.

"제가 이해한 시나리오에서는 공길용이 절실함에 빠지는 순간을 여러 차례 맞습니다. 범인을 잡는 것과 아이를 구하는 것 중에서 아이를 구하는 게 먼저라고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엄마의 얼굴만 해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겠죠."

범죄물치고는 적은 편인 액션 장면도 이런 절실함이라는 정서 위에서 탄생했다. "액션신의 강도는 오히려 작은 편이에요. 행동보다는 절실함이 중요했어요. 이대로 놓치면 범인이 영영 숨어서 안 나올지 모른다는, 그런 절실함이죠."

김윤석이 '극비수사'에 '닭백숙 같은 영화'라는 수식어를 단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실화의 힘만은 아니에요. 범인을 체포해 나가는 모습뿐 아니라 '소시민'들의 소신껏 하는 행동들, 그 가족들의 모습까지 많은 이야기를 진실성 있게 함축하고 있죠. 장르적으로 담백해요. 오히려 더 섬세하고 더 묵직한 이야기입니다."

2010년 이후로만 '황해', '완득이', '도둑들', '화이', '해무' 등 쉬지 않고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그에게 '극비수사'가 어떤 영화로 기억될 것 같은지 묻자 "부산 사투리를 쓴 영화로 기억될 것 같다"는 편안한 답변이 돌아왔다.

"제가 부산 사투리로 전면적으로 연기한 건 처음이거든요. 제가 부산에서 자랐는데 어렸을 때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부산 말씨가 나오는, 그 지역의 정서가 배어 있는 영화죠."

'음원강자' 이승기, 빅뱅·엑소 판도 바뀔까

배우 겸 가수 이승기(28·사진)가 10일 낮 12시 6집 '그리고...' 를 발표했다.

이승기의 컴백은 이달 초 신곡을 낸 그룹 빅뱅과 엑소의 경쟁 구도가 형성된 가요계에서 판도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이승기가 배우로서 연기에 할애하는 기간이 길었지만 앨범을 낼 때마다 차트를 휩쓴 '음원 강자'란 점, 이미 앨범 출시 전 각종 예약판매 실시간차트 1위에 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팬들의 기대치가 높아 보인다.

6집 컴백 … 직접 작곡·편곡 참여

이날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6집은 2012년 11월 발표한 5.5집 '숲' 이후 2년 7개월 만의 신보로 따뜻한 감성의 음악이 수록됐다.

타이틀곡 '그리고 안녕'은 브리티시스타일의 록 발라드로 이승기의 호소력 짙은 음색이 돋보인다. 이 곡은 '아직 못다 한 이야기', '우리 헤어지자', '결혼해줄래' 등 이승기의 대표곡을 만든 김도훈이 작곡했다.

첫 번째 트랙 '바람'은 작사가 김이나가 한 편의 시 같은 노랫말을 보탰다. 또 '친구'는 오랜 친구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을 하는 '이승기 표' 솔(Soul) 음악이다.

'~하니?'와 '배낭을 메고', '우리 함께한 그 모든 시간'은 이승기가 작곡에 참여한 곡이다.

'~하니?'는 평키한 스타일의 곡이며, '배낭을 메고'는 아련한 감성의 미디움 템포 곡, '우리 함께한 그 모든 시간'은 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담긴 노래다.

이승기는 또 '그대와 나'란 곡에선 편곡에도 참여했다. 소속사는 "오랜만에 가수로 돌아온 이승기가 남다른 설렘을 갖고 있다"며 "이승기가 작곡과 편곡에도 참여해 음악적인 성장이 느껴지는 앨범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앨범의 오프라인 출시는 11일이다.

"해체는 사실무근 … 새 음반 준비 중"

데뷔 10년 맞은 브라운아이드걸스

해체설에 휩싸인 4인조 걸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제아, 나르샤, 미료, 가인)〈사진〉가 이를 반박하며 "새 앨범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브라운아이드걸스의 소속사 내가네트워크는 10일 "브라운아이드걸스 해체는 사실무근"이라며 "멤버들이 새 앨범 준비를 시작했으며 이 앨범이 마지막 앨범도 아니다"고 말했다.

세 멤버와 기획사가 다른, 가인의 소속사 에이팝엔터테인먼트도 "브라운아이드걸스 앨범의 선곡 작업이 끝났다"며 "아직 발매 시기를 확정한 건 아니지만 앨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6년 데뷔한 브라운아이드걸스는 '어쩌다', '아브라카다브라'(Abracadabra) 등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으며 올해로 10년 차를 맞았다.

지난해 8월 첫 베스트 앨범을 낸 뒤 개별 활동을 펼치면서 공백이 길어지자 이 같은 소문에 휩싸인 것으로 보인다.

그간 가인은 솔로로 새 앨범을 냈고, 나르샤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미료는 곧 솔로 앨범을 낸다. /연합뉴스